

# ‘무한경쟁’을 ‘무한향상’으로 바꾸면 행복

## 금봉암주지 고우 스님

조류빛이 온 산천을 물들이고 있다. 봄날의 그 많은 빛깔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것일까? 산수유, 노란빛, 진달래의 자주빛, 목련의 흰빛, 뱃나무의 연분홍빛, 오동, 보랏빛... 연못에서 초록으로 길어지면서 그 사이사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현란한 빛들에 청백을 누웠던 시간들을 떠올려 본다. 꽃 진 자리가 허전하다. 꽃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했던가. 꽃 진 자리에 열매 맺으니 그 또한 기쁜 일이다. 꽃 피고 지면서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진정 슬픈 일이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금봉암이 자리잡고 있는 문수산은 태백산맥의 한 줄기로 산세가 기운차고 험준하다. 고우 스님은 17년간의 각하사 서암의 토굴 생활을 접고 이곳에 터를 잡고 법당과 요사채를 지었다. 단청이 없는 소박한 전통 당우를 보면서 고우 스님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고우 스님은 '이곳에서는 오로지 법회만을 열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처럼 그렇게 살림을 꾸려보고 싶다'고 했다.

고우 스님은 선승으로도 명성이 자자하지만, <금강경> <서장> <선요> 강의로 대중들의 인기를 모았다. 어렵고 추상적인 선불교도 스님의 입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언어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조계종 최초로 간화선 수행법을 정리한 책인 <간화선> 발간을 주도하는 등 참선 공부의 저변을 넓히는 데 힘쓰고 있다.

선종에서는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가라(捨教入禪)'고 한다. 하지만 고우 스님은 평생 참선수행을 하신 분이므로 교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선수행은 나를 철저히 비워나가는 과정인데 비해 경전을 통한 공부는 무엇을 얻고 채워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교화는 참선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여쭙자 고우 스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다.

"자신이 무어(無我)임을 알고 있는 이것을 통해 바르게 실천해나간다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상관없어요. 아는 것이 곧 지혜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사람 중에 가장 큰 병이 수행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서 깨닫는 것이 불교공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 바로 수행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선(禪)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천천히 없애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비운다든지 없애간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방편인 과정의 이야기이고 깨달음이라는 목적에 가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선과 교 모두가 목표는 깨달음 즉 성불(成佛)임을 간파해서 안됩니다. 옛 선사들은 과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구경각이 목적인 본래면목(本來面目) 그 자리에서 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목적에 도달한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 목적에 도

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사물에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더해서 보잖아요. 말하자면 세탁 안 된 상태에서, '나'라는 의식의 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입니다."

세탁이 안 된 상태에서 의식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두고 중생이라 한다. '나'가 있다는 생각이 바로 근본 '때'이니 그것을 벗겨야 하는 것이다.

"화두라는 것도 바로 '때'가 벗겨지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화두를 제시한 사람은 그 순간에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결코 의심하라고 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화두를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고 알고 노력하다보니 의심을 하게 된 것이고 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화두란 아주 비상한 약이지만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신비스러운 비상한 약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려고 하는 가운데 의심을 해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을 하니 공부에 진척이 없어요. 화두를 받은 순간 깨닫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은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화두를 알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밑바탕에는 깨달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만 화두에 대한 의심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고우 스님은 화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깨우쳐 주었다. 바른 심심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는 것이란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내용을 한 평생 설법하신 분으로 팔만대장경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모아 둔 것이다. 고우 스님은 팔만대장경을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바로 공(空)이라 한다. 공은 곧 무아(無我)이다.

### 선은 얻어지는 것 아니라 없애가는 과정

### 이 세상 어떤 것도 홀로 독립된 것은 없다

### "화두 알려는 간절한 마음에 깨달겠다는 결심 있어야"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반야심경>은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으로 시작되잖아요. '형상 지어낸 것은 유정·무정 모두 색(色)인데, 그 색이 공(空)한 것을 알게 된다면 일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오온개공'을 생로병사에 대입을 하면 태어나는 것도 공이요, 성장하는 것도 공이요, 늙고 병드는 것도 공이요, 죽을 그 자체가 공입니다. 조사 스님들이 즐겨 들던 비유를 하나 들까요? 시골에 가



성경이 마음을  
고우

**고우 스님은...**  
1937년 성주출생. 1961년 청암사 수도암에서 법학 스님을 은사로 득도. 관음 스님으로부터 <기신론>을, 고봉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을, 혼해 스님으로부터 <원각경>을 수학했다. 봉암사, 축서사, 김용사, 용주사 등의 재방선원에서 평생을 참선수행으로 일관했다. 1968년 문경 봉암사 선원을 재건해 종립특별선원의 기틀을 마련. 전국 선원 수좌회 공동 대표 역임. 각하사 태백선원장 역임. 지금은 조계종 원로위원이며, 문수산 금봉암에 주석.

에 불과한 것"이라 했다. 물론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되어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세분화하면 쿼크인데, 쿼크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1조분의 1이다. 그 전까지는 쿼크가 모든 물체를 이루는 최소단위라 여겼다. 하지만 최근에 질량화 되어 있지 않은 힉스가 있다는 사실을 세우놓고 빅뱅실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힉스를 '신의 입자'라고 부른다. 고우 스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법성이 힉스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처님이 발견한 공·무아·자성·법성 등을 현대 물리학이 하나하나씩 증명해가고 있어 참 다행한 일'이라 했다. 공과 연기법을 알게 되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말씀을 이어갔다.

"공에 대해서 백퍼센트 체함을 못한다 하더라도 신념화만 되어도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경전 독송, 참선, 열부, 봉사 등 여러 가지 수행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 과정이 자신을 비워나가는 수행입니다. 공에 대한 이해가 신념화만 되어도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확인해요."

고우 스님의 얼굴에 항상 웃음과 편안함이 가득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머무는 바 없이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와 화평함을 담고 있는 것이다. 고우 스님은 짧은 날에 폐결핵을 치유하기 위해 잠시 절에 머물렀다. 그때 절에 머물면서 불교를 알게 되었고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 즐거웠다. 출가를 하고 나서야 자신이 왜 폐결핵을 앓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고우 스님은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지만, 무한경쟁은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철저히 '내가 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이 욕망은 때로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해치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무한경쟁으로 치달는 사회는 피곤한 사회라고 일침을 가했다.

"무한경쟁이 '무한향상'으로 생각이 바뀌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됩니다. 무한경쟁은 욕망에서 출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

면 가마니, 짚신, 새끼줄, 명석이 있는데, 모양새는 달라도 그 재료는 전부다 짚으로 되어 있어요. 재료는 하나이지만, 새끼가 되었다가 명석이 되었다가 가마니가 되었다가 하잖아요. 이 짚이 바로 공(空)입니다. 매순간이 그대로 공이요 무아입니다. 연기(緣起)이기 때문에 공이요, 무아인 것입니다."

고우 스님은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모든 것은 연기로써 존재하고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강조했다. 연기를 이해하면 불교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내가 본래의 그 자리, '본래부처'임을 알게 된다고 했다.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내가 있다'는 착각을 깨고 '본래 부처'라는 것을 체할하기 위해서란다.

연기법이 거창한 것 같지만, '이 세상 어떤 것도 홀로 독립된 것은 없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고우 스님은 "우리 몸은 지수화풍 사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원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원자 덩어리

**유기농 보이차(ORGANIC PUER TEA)**  
**유기농 보이차의 보급화 선언!**  
현불샵(hyunbulshop.com) 입점 기념 15%할인 판매  
250,000원 ⇨ 15% DC 특별 할인가 212,500원

**이주 특별한선물유기농 보이차선물세트** (유기농보이차 속차 357g + 대나무보관통 + 보이차 다기세트 7종)

1등급 100% 유기농 보이차만을 엄선하여 준비했으며 보이차 전용 다기세트는 드리는 분의 정성과 선물의 격을 한층 더 높혀 드립니다.

- 제 6기 중국보이차 "보이차왕" 수여
- 미국 FDA, 유기농인증 획득한 USDA
- 일본 유기농인증기관인 JAS

중국 보이차 기업 중 최대규모인 670만평 이상의 보이차 생산단지과 100%유기농법으로 생산하여 그 품질과 맛이 가장 뛰어난 (주)고진 유기농 보이차! 후 발효차인 보이차의 깊은 맛과 오묘한 향의 끝맛을 그대로 발효시켜 황제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유기농 보이차입니다.

중국에서도 유기농회사로서 처음으로 생산 공정과 가공공정 발효공정에 특허를 받아 오생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발효시켜서 만든 유기농보이차입니다. 중국황제가 마시던 보이차는 오래 묵을수록 귀한 고가의 차며,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거치는 후 발효 차이며 오래 묵히면 묵할수록 고가의 차가 됩니다. 방습통풍이 잘되는 적절한 온도하에서 보이차는 독특한 맛과 향, 약효를 가지게 됩니다.

유기농 보이차는 상류층이 주로 애용하는 고가의 차이며 국가주석 후진타오도 보이차를 즐겨 마시는 보이차 애호가입니다.

중국의 주석 후진타오가 오생유기농 보이차를 접하고 나서 유난히 맛과 품질이 뛰어난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현재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오생 보이차만을 애용하고 있고 최고의 품질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국제적으로 홍보를 대신해 주고 있으며 유명인사 방문 시 오생의 보이차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 유기농 보이차 속차**

- 제품명 : 유기농보이차 속차 · 식품유형 : 침출차 · 내용량 : 357g
- 제조회사 : Yunnan Longsheng Green Industries (group) LTD
- 원재료명 : 홍차 100%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수입판매 : (주)고진 · 포장재질 : 종이재
- 제조일자 : 2007년 03월 01일 (제조일자는 2007년이지만 2006년에 수확한 차잎을 사용해 제조하였습니다)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년 (보이차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때문에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만 잘 하시면 훌륭한 보이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 불교온라인쇼핑몰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실내용 양초 - 밑받, 약초, 식물성 양초
- ◇ 장엄용 양초 - 아광, 용초, 호랑이, 봉황 (7.5 × 35cm)
- ◇ 육각초 - 7.5 × 45cm (적색, 핑크, 노랑, 연두, 주황, 백색)

**우창산업 (삼환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원리 35-16  
소배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